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봉사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

성경: 롬 1:1, 9, 15:16

- I. 믿는 이들과 관련하여 신약에 계시된 모든 요구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요구를 위해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통해 몸의 신성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 — 엡 3:2, 히 4:16, 롬 5:17, 21, 요 7:37-38, 행 6:4, 빌 1:5-6, 19-25.
- II.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 — 마 4:9-10, 아 1:2, 비교 시 2:11-12.
- A.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한다 — 살전 1:9.
1.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향해, 또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같은 작은 일에서조차도 우리를 통제하시고 지시하시며 교정하시고 조절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이다 — 빌 1:8, 2:5, 13, 1:20.
 2.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와 교정 아래 삶으로써, 우리가 확산하는 기쁜 소식의 본이 된다 — 살전 1:5-8, 2:10, 살후 3:5.
- B.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세부적인 일들에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지닌 삶을 우리의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어야 한다 — 롬 8:6, 16.
- III.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롬 1:1)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직역하면,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9절)라고 선포한다.
- A. 로마서 1장 9절에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경배하여 섬기다’를 의미한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도 사용된다.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를 다만 하나의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 B.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경배할 때,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이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 히 9:14, 10:22, 요일 1:7, 9, 행 24:16, 비교 딤후 4:7.
- C.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만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 행 5:42, 롬 1:3-4, 8:29.

- D.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어야 한다(롬 1:9).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2:29, 8:5-6, 9),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10, 16절),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1:9, 7:6, 8:4, 13, 12:11),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E. 바울은 혼 안에서 혼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즉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그의 복음 전파에서 첫째로 중요한 항목이다.
- F.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분별되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이다. 로마서는 다섯 번째 복음서로 간주될 수 있다 — 롬 1:1, 2:16, 16:25.
 1. 첫 네 복음서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곧 육체를 입고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은 그 영으로서 그분의 제자들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 롬 8:2, 6, 9-11, 16.
 2. 우리에게는 다섯 번째 복음서인 로마서가 필요한데, 이 책은 그리스도에 관한 주관적인 복음서로서 우리 안에 계신 주관적인 구주를 계시한다.
 3.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있는 죄인들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셔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 — 롬 8:29, 12:1-5, 16장.
 4. 우리 모두는 로마서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복음의 요소들과 세부 항목들을 배워야 하고,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체험해야 하며,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복음을 공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롬 15:16.

IV.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 요 4:24.

- A.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 요 4:10-14.
- B.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죄인들이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셔서,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 요 3:16, 4:14하, 비교 램 2:13.
- C.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를 위해 자신이 선택하신 곳에서(신 12:5, 11, 13-14, 18), 제물들로(레 1-6장) 경배를 받으셔야 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위해 선택하신 곳은 사람의 영을 예표하고(엡 2:22),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히 10:5-10).
- D. 신성한 실재는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재이시고(요 14:6, 1:29, 3:14), 믿는 이들이 참여하고 마신 생수의 원천, 곧 생명 주시는 영(요 4:7-15)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실재가 되시는 분이시다(고전 12:13, 요 7:37-39).
- E. 우리가 제물들의 신성한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누릴 때, 그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를 위해 우리의 참됨과 성실함(진실함)이 되신다 — 요 4:24.

V.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 빌 3:3, 비교 롬 2:28-29.

- A. 육체는 우리의 타고난 온 존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타고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육체이다 — 빌 3:4-6.
- B.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천연적인 출생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든지 신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은 모두 육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C.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살 수 있고, 육체 안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타고난 자질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이 구절들에 의해 깊고도 개인적으로 만져지는 것은 중요하다.
- D.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실과 육체에 둔 우리의 신뢰와 관련하여,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께 빛 비춤을 받아,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많이 육체에 의해 살고 우리의 행실과 자질을 자랑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E. 어느 날 이것에 대한 빛이 우리 위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 행한 모든 것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 행한 것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유죄 판결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볼 것이다.
- F.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자질을 자랑했지만,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자질을 유죄 판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안에는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이다.
- G. 우리가 하나님께 빛 비춤을 받을 때만,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자질이나 능력이나 총명함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럴 때에야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빛 비춤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그 영에 의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VI.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자신이 육체 안의 사람으로서 다만 죽고 장사 지내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 마 3:13-17, 21:32.

- A.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근거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인성에 따라 한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 있는’ 사람(비교 빌 3:3, 요 1:14)으로 여기신 것이다. 비록 그분은 다만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롬 8:3) 계셨고 ‘죄가 없으셨지만’(히 4:15), 여전히 ‘육체 안에’ 계셨고, 그 육체는 좋은 것이 전혀 없고, 죽고 장사 지내기에만 합당했다.
- B.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될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꺼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원하셨다.
- C. 육체 안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하나님의 신약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죽음의 물에 장사된 죽은 사람이 되셔야 했고,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여기셔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
- D.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봉사를 수행하는 그분의 사역 안으로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을 조금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E.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나는 육체 안의 사람으로서 다만 죽고 장사 지내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기 원합니다.” — 비교 갈 2:20.

VII.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타고난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과 능력에 의한 것이다.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원한 원칙이다 — 민 17:8, 고전 15:10, 58, 16:10.

- A. 생명 주시는 영께서 삼일 하나님의 실재이시고, 부활의 실재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시다 — 요 16:13-15, 20:22, 고전 15:45하, 엡 4:4.

- B. 부활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고 우리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민 17:8.
- C.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죽음과 관련된 것은 모두 우리에게 속하고, 생명과 관련된 것은 모두 주님께 속한다 — 고후 1:8-9, 비교 전 9:4.
- D.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음을 수궁해야 한다 — 출 2:14-15, 3:14-15, 눅 22:32-34, 뱀전 5:5-6.
- E.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 고전 15:10, 고후 1:8-9, 12, 4:7-18.
- F.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빌 3:10-11, 엡 1:22-23.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체험함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그분을 섬길 수 없다. 그분을 섬기지 않고는 그분을 경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경배하는 것에 대해 마귀에 의해 시험받으셨다.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을 언급하면서 마귀는 “그대가 옳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9절)라고 그분께 말했다. 주 예수님은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다.”(10절)라고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 사실상 섬기는 것임을 본다.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 우리는 그분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이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말한다. 문자적으로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노예로서 섬기는 것을 뜻한다. 9절에 사용되었듯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므로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살전 1:1).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살아 계시고’라는 말이 ‘참되신’이라는 말보다 앞에 언급된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란 보다 용이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일상생활의 각 방면에서 살아 계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의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현재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우리의 현재 생활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지시하시고 다루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보다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를 교정하시고 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같은 작은 일에서조차도 우리를 통제하시고 지시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통제, 지시, 교정 아래 생활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사소한 것들에서도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지닌 생활을 해야 한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지녀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어야 한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살아 계신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 계실 때 그분은 또한 참되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배하러 올 때, 우리는 순수한 양심, 즉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고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정결하게 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시간에 제한받는 사람의 몸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에 속한 영원하신 영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영에 의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을 요구한다. 죽은 종교 안에서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죽은 것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양심은 우리 영에서 인도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섬기기를 갈망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에 오신다(요 4:24).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살아 계신다.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은 우리가 살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죽은 행실’과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엡 2:1, 골 2:13),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이다. 히브리서는 종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다(3:12, 9:14, 10:31, 12:22).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며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용서를 위해 흘려졌으며(마 26:28), 새 언약은 이 피로 완성된 것이다(히 10:29, 눅 22:20). 이 피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성취했으며(히 9:12, 엡 1:7, 뱀전 1:18-19), 지금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씻으며(계 1:5, 요일 1:7)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영 안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직역하면,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롬 1:9)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태복음 4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누가복음 2장 37절에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기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려면,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신약의 봉사와 경배는 복음을 전파할 때 수행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외의 어떤 것에도 관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신약에서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한’ 것이다.

로마서 1장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영에 달려 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을 훈련해야 한다.

로마서에서만 바울은 자신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항상 영 이외의 것들, 즉 문자, 형식, 교리에만 집착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영 안에 있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갖든지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 안에 있어야 하며, 할례는 밖에 있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7장 6절에서 그는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영의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상 로마서의 주제이다. 이 책 바로 첫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의도가 복음에 대하여 쓰려는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로마서 전체는 복음, 즉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완전하게 밝혀 준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쓴 그의 서신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2장 16절에서 그는 “이런 일은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에 따라 성도들을 세우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롬 16:25) 그러므로 로마서는 다섯 번째 복음으로 여겨질 수 있다.

신약의 첫 네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 육체를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로마서의 복음은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께서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제자들 가운데 계셨지만,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 이후부터 죽고 부활하시기 전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부활

하신 후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복음은 부활하신 후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보다 더 깊고 더 주관적이시다.

우리가 신약의 처음 네 권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갖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너무 객관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복음을 계시하는 다섯 번째의 복음, 곧 로마서의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육체 되심 이후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더 깊고 보다 주관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의 복음이며, 이제 그분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시는 주관적인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더 깊고, 보다 주관적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물론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구원을 포함하지만 중심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복음의 중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다. 복음은 교리나 가르침이나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놀라운 인격,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는 죄 많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신다(8:29). 그러므로 복음의 중점은 죄들의 용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 있는 죄인들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모두는 이것을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죄들을 용서받거나 영적이 되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봉사였다.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는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한 제사장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분을 섬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으며, 그다음에는 복음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공급하는 법, 즉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하는 제사장들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촉할 때마다 그가 믿는 이 이든 불신자이든 우리는 복음과 관련된 그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가 분명해지도록 도와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기까지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를 섬길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지 모르나 복음의 다른 방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무엇인가를 공급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점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음의 요소들과 자세한 항목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체험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을 섬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한다. ‘봉사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을 뜻한다. 모든 신약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벧전 2:9, 계 1:6).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은 무슨 방면에 서든지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봉사이다.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한다.

빌립보서 3장 3절 상반절은 우리가 육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경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유일한 봉사와 경배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수단이다. 그와는 반대로 유대교의 경배와 섬김은 육체와 그것에 관련된 다양한 규례들을 갖고 있다. 그러한 규례들은 음식에 관한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포함한다. 유대교도들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봉사와 경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신약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의해 참되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대교도들은 육체와 관련된 율법의 규례들로 섬기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긴다.

영 안에서 실제로

믿는 이들은 영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한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혹은 실제)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요 4:23-24) 성경의 예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를 세우시려고 선택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신 12:5, 11, 13-14, 18), 제물이 있어야 한다(레 1-6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위해 선택하신 곳은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인 사람의 영을 예표한다(엡 2:22).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드리는 모든 제물들의 성취요, 실재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영 안에서 실제로 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특정한 장소 대신 우리의 영 안에서, 제물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 하나님을 접촉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실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모든 그림자들과 예표들은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을 접촉하는 것이다.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의 문제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세우신 특정한 곳에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정하셨다(신 12:5).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유일한 장소로 가야만 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으며 예표는 완성되었다. 예표적으로 말해서 경배의 장소는 더 이상 어떤 장소일 수가 없다. 그보다 그곳은 하나님께

서 그분의 이름과 거처를 두시려고 세우신 곳인 사람의 영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것은 참된 경배,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에 있다는 점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처소이자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인 시온 산은 사람의 영의 예표였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산 위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도 않다.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사실상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 그 장소는 우리의 영이다. 우리가 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 안에서 보존된다.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경배, 곧 그분이 갈망하시는 경배는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는 또한 실재 안에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물들을 가지고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요구되었다. 제물들은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드렸던 모든 제물들의 완성이요 실재이다. 그리스도는 참된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모든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들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

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때 믿는 이들은 그들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빌 3:3하). 여기에서 육체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의 모든 소유로 구성된다. 유대교도들이 그들의 할례를 신뢰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육체를 신뢰했다는 표시였다. 그들은 자신의 천부적인 자질과 능력을 신뢰했으나, 그 영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대조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한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단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반절의 '육체'의 의미가 아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팔 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따라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육체의 방면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악한 것만을 포함할 뿐 선한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뛰어난 방면들이 여전히 육체이다. 바울이 율법에 따라 열심히 행했던 모든 것은 육체였으며 육체에 속한 것이었다. 율법에 따른 그의 의(義)까지도 육체였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열거한 모든 특성들은 육체의 방면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타고난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타고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다 육체이다. 유대교도들은 그들의 육체를 신뢰했다. 즉 천연적인 출생에 의한 그들의 어떠함을 신뢰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으로 소유한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속한 모든 것은 육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참된 봉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해야 한다.

우리는 유대교도들은 아니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대교도들의 어떠함과 동일하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살고, 육체로 행한 것을 자랑하고 천연적인 재능을 신뢰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러한 구절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본성과 행위와 육체를 신뢰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빛 비취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 빛을 받는다면, 우리는 거듭나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서 너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이러한 것에 관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주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백하고 싶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하는 모든 것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 악하고 유죄 판결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재능을 자랑했다. 그러나 재능 있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유죄 판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안에는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빛 비춤을 받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과 능력이나 지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라야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한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빛 비춤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와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경배할 것이다. *(신약의 결론, 믿는 이들 II, 853-863쪽)*